

나의 감정들

김지원

2020년 4월 1×일

코로나로 인해 연기 되었던 학교수업 첫시간이었다. 처음부터 온라인이라니 난 좋았다.워낙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친구도 잘 사귀지 못하는 아이니까. 학교가서 어색하게 지내는 것보단 나았다. 거기다가 언제들어도 상관없는 녹화본 수업. 이보다 좋은생활이 어딴을까. 그저 뒹굴거리며 하루를 지내다가 내가 원하는 때에 수업을 듣고,출석체크를 하고,편했다. 유일하게 몇없는 친구도 시간될때 만나서 놀다가 오후에 수업을 듣고는 했다. 좋았다. 그냥 이 생활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학교에 가기 전날이 되었다. 아 지옥이다 가기싫어.라는 생각만 들며 다음날이 되어 학교에 갔다. 이미 여럿 친해진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유명이었다.좋았다. 난 자발적 아싸였으니까. 같은 반이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쉬는시간, 점심시간만 되면 같이놀던 친구들이랑 놀았다. 같이놀던 한친구 덕분에 친구를 조금더 여럿 사귀었다. 내 범주 안의 사람들. 은근 기분좋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것도 조금더 할수있었다.

책을 읽고 소설을 읽고 웹소설을 읽고, 평소 보고싶었던 웹소설도 보면서 나름의 행복감을 채워가는 중이었다. 그리고 내 취미를 여전히 해나가며 내가 좋아하는걸 했다. 내 취미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많지만 난 괜찮았다. 그사람들이 나에게 뭐라할 이유따윈 없다는 생각이었으니까 태연했던것같다. 그래서 떳떳했다. 여전히 그렇고. 친구들도 계속만나고 말이다. 만나면 '안녕' 이라고 안부인사를 건네는 친구는 두명에서 어느새 3명,4명,5명...하나씩 늘어가기 시작했다. 아,저 친구들도 나와 안부인사 해주는,나를 생각해주는 아이들이구나. 그 아이들과는 급속도로

친해졌다. 물론 친화력이 좋았던 친구 덕분이지만..
친화력은 제로다.정말 없다. 무언가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친구가 없다면 그 아이들과는 절대로 친해지지 못했겠지.
그래서 더 고맙게 생각한다. 정말 내 친구. 기분좋아

물론 나에게 악영향을 끼칠때도 있었다. 난 어두운걸 정말 좋아한다.밖은건 싫으니까. 눈아프다. 방에는 암막커튼을 항상 치고 지내는 중이고, 문도 꼭꼭 닫아서 빛은 허용하지 않는 방이다. 안락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나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없는것 같아서 안락함과 동시에 편안했다.

하지만 내 우울감을 극대화시키기엔 충분한 조건이었고 하루하루 우울했다. 가뜰이나 말수도 없는데 더 없어지고,표정도 잘 웃었지만 이젠 무표정이 대부분이다. 무표정이 무서워보인대서 웃으려고 노력은한다. (내가 봐도 무섭다.) 이렇게 우울감에 빠질때면 항상 좋아하는 피아노곡을 틀었다. 그러면 좀 나아졌다. 우울했던게 사라지고 텅비었으니까. 우울보단 공허가 좋았다.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내 생활은 똑같았지만 조금씩은 달라졌다. 친구가 여럿 생겼다는게 제일 달라졌던것 같다. 나도 내가 어떻게 그 친구들과 사겼는지 모르겠다. 아마 내 인생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겠지.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교환했다. 진짜 내 인생 미스터리 중 하나일꺼야. 학교를 간다는 건 여전히 싫지만 친구들을 만나다는건 기분이 좋아진다. 아 학교가 아닌 다른 곳이라면 더 좋을텐데.. 그래도 그것에 위안받으니까 괜찮다.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지금이 제일 좋은거 같다. 지금 생활은 충분히 만족중이다. 학교가 짜증난다는 것만 제외하면 말이다. 생각하니까 다시 짜증이 치고 올라온다. 그만 생각하는게 좋겠어.

며칠 전엔 생일이었다. 그 전날 제사여서 오랜만에 큰외삼촌댁에 들렀다. 다들 내가 기억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성격 그대로. 그 목소리 그대로. 거부감은 없었다. 가족이라 그런거같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라고 크게 인사했다. 오랜만에 만나도 어서와!라며 반겨주는 가족들은 기억 속 그대로였다. 열심히 부치는 전을 빼먹고, 장난도 치고, 많이 웃었다. 정말 많이 웃었다. 아마 올해들어 제일 크게 웃은거 같다.오랜만에 사촌들도 보고 말이다. 작은 외삼촌은 여전히 장난을 잘 치시는 분이였다. 바뀐 것 따윈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만났으니 앞으로는 문자도 자주넣고... 전화도 자주하고... 그래야겠다. 좋아해주시겠지?

여전히 나는 외로움에 익숙해져 있는거 같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여전히 사람을 잘 대하지 못하는거 같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기 어렵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부인사를 전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내 인간관계들까지 무너트릴 정도의 멍청이는 아니다. 외로움에 익숙하다해도 내가 쌓아온 것들은 '내'가 그만큼 변했다는 증거이니까. 앞으로도 만나면 누구를 만나던,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들은 만나던, 가족을 만나던, 날 챙겨주는 누군가를 만나면 인사부터. 잘 지냈냐는 인사를, 잘 있었냐는 인사를, 그냥 소소한 일상을 말하는 인사를 해야지. 응 그래야지.

쓰다보니 여전히 헛소리 같다. 그냥 꿈인거 같다. 하지만 나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기억했고, 내가 기록한 글이다. 누가 헛소리라 해도 내가 쓴글,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이고, 내 의지의 글이니까. 솔직히 두렵다. 내 기억, 감정, 기록을 읽는거라 생각하니 내 속마음이 들키는 기분이다. 동시에 후련하다. 내가 그동안 분출하지 못했던 쌓아온 모든 것들을 적을 수 있다는 것. 이제야 모든 걸 후련하게 털어낼 수 있다는 감정이 새롭다. 아직은 적은, 17년의 삶이지만 그 삶의 조금이라도 괜찮은 기억이 있다는 게 다행이다. 하나라도 없으면 억울할 테니

까. 왜 없냐고 미래의 내가 따져도 할 말 없을 거 같을 뿐이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없었으면 억울 할 뻔했다. 기껏 친구 사겼더니 그게 기쁘지 않은 기억이라니 지금의 내가 봐도 미친년이 될 뻔했네.

근데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집순이인 나는 편하다. 역시 집이 최고야. 솔직히 답답하다는 사람들도 많다.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난 역시 편한게 좋다.아직은 이로운 점이 많다.. 인 것 같다. 하나의 마음만 꼽으라면 꼽을 수 없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과 조금만 더 이런 편안한 생활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래도 안부인사는 전하게 해주었음 좋겠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직은 많아서... 그래서 못 놓아서... 조금만 더 이 생활이 지속되더라도 인사는 해주게 해줬음 좋겠다. 달에게 소원이라도 빌어볼까. 진심 가득 담아서.